

다산포럼

공공 일자리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충격 흡수해야

소득주도성장 성공하려면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소득 주도 성장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통화신용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감세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해 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기에, 문재인 정부가 남아 있는 거시경제 정책 수단은 정부지출 확대 뿐이다.

2014년 한국은행 산업연표의 취업유발계수를 활용해 중앙정부 총지출 약 400조 원 투입으로 유발된 취업자 수는 570만 명 정도로 추계된다. 570만 명 중 중앙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비공무원 수가 75만 명이므로, 나머지 495만 개 일자리는 공기업과 민간 부문에서 정부지출로 창출된 것이다. 정부지출로 유발된 570만 명의 취업자는 총취업자 2680만 명의 21%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11조 원이 국회

를 통과한다면 2017년 정부지출은 411조 원으로 늘어나고 16만 명의 취업자가 더 생길 것이다. 신정부 계획대로 정부지출을 매년 7%씩 증가시킨다면 2018년 정부지출은 440조 원으로 지금보다 57만 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다. 물론 정부지출로 유발되는 간접 고용창출이 전부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지출은 이미 강력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은 월급여로 환산하면 200만 원이 넘는 소득이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원래 임금 주도 성장 정책으로 시작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주도 성장을 위해 필수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인건비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퇴출이 발생해 실업이 늘어날 것이라 반대 의견도 있다.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으면 투자를 해서 노동생산성을 올리든지 아니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임금을 지금해도 노동자 채용이 가능하면 사용자는 굳이 노동생산성을 올리

려고 투자를 할 필요도 없다. 결국 저임금 온존이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낮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자영업자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을 보면 음식·숙박업 29%, 도·소매업 36%에 불과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창업·폐업 반복에 따른 자원의 낭비가 계속되고, 폐업자 중 상당수는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자영업자 폐업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인상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일자리를 구조조정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은 항상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한다.

568만 명의 자영업자 중 임금근로자를 채용하는 자영업자가 158만 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과 한계 자영업의 몰락과 함께 고용도 축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한계 부문의 퇴출이 이뤄지면 살아남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용도 늘릴 것이다. 더욱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소득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로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다.

어떤 개혁도 개혁에 따른 단기 부작용의 골짜기를 넘어셔야만 하는데, 최저임금 개혁의 골짜기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완해 줄 수 있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의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편의점의 야간 영업을 강제하는 것도 불공정거래 행위다. 야간 영업을 해 봐야 손해만 보는 편의점은 야간 영업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한다.

신정부 정책 핵심 중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고용 창출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와 '저녁 있는 삶'은 매력적인 정치 구호다. 그러나 '저녁 있는 삶'은 기본 생계가 보장된 이후 꿀 수 있는 이상이다.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는 기본 생계도 꾸리기 어려운 저임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저녁 있는 삶'이란 공허한 구호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고임금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임금 부문에서 이뤄지는 근로시간 단축은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법정지출이 아닌 한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 투입예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큰지를 따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과 경제성을 먼저 철저히 검증한 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교단에서

조선 역관 홍순언



김진우 우산중학교 교감

약수가 화제다. 여러 나라 국가대표들이 만나 약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가움이나 신뢰의 표시 이상의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 그 중심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71)가 있고, 프랑스 마크롱(39) 총리, 독일 메르켈(63) 총리, 캐나다 트뤼도(46) 총리, 일본 아베(63) 총리가 출연해서 현재 진행 중인 현대사다.

독일과 무역적자 등 여러 문제로 마음이 불편했던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요청에 메르켈이 약수할까 물었으나 끝내 못을 찌했다. 아베와는 19초 동안 손을 잡아떨면서 흔들거나 손등을 토닥이기도 했다. 언론은 19초의 긴 약수를 두고 여러 의미를 부여했다. 들고 온 조공 문서에 만족한 표시라고도 하고, 그만큼 미일관계의 깊고 두터움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약수(握手)하면서 밀리면 약수(惡手)될 수 있다는 학습효과에 따라 트뤼도

와 마크롱은 선제적으로 달리 대처했다. 뚱뚱인 트뤼도는 약수를 하면서 트럼프의 오른쪽 어깨쪽지를 왼손으로 툭 붙잡아 당길 수가 없게 만들었다. 젊은 마크롱은 6초 동안 트럼프의 손가락이 허약해질 정도로 세게 붙잡아 역공을 취했다.

상대국의 대표를 자신 쪽으로 확 끌어당겨 자국의 힘과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욕망과 이에 끌려갈 수 없다는 방어 의 보디랭귀지가 현란한 외교적 수사를 앞지르고 있다. 이 험한 국제외교전을 보면서 조선의 의미있는 외교관 한 사람의 일화를 소개한다.

역관 홍순언(洪純彦)은 선조 때 사람이다. 조선시대 역관은 외교통역과 무역을 담당했다고 한다. 당시 명나라로 보낸 사절단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 명나라 법전인 '대명회전'을 고치는 것이었다. 즉 왕실 계보를 바로 잡는 종계변무(宗系辨謫)였다.

태조 3년(1394년) 이상계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한다. '대명회전'에 이상계의 아버지가 이자춘이 아니라 그와 권력을 다투었던 이인임으로 되었다. 왕실의 잘못된 기록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로부터 200년 동안 계속 사신을 보냈으나 이 오류는 고쳐지지 않았다. 명은 잘못 된 줄 알면서도 매달리는 조선 왕들을 보면서 조커 내지는 꽃놀이패로 사용하

서 매번 거절했던 것이다. 홍순언이 북경 도착 하루 전에 통주에서 하룻밤을 묵고자 주막에 들러 묵을 죽이는데 시종드는 여인이 소복을 입었다. 괴이 여겨 사연을 묻자 부모가 역병으로 죽어 관아에 있는데 고향으로 모실 장례비가 없어 소복자림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순언은 전대에 있는 무역자금을 모두 털어 300금을 주었다. 슬픔과 역병에 처한 상주를 통 크게 도와주고 주막을 나서자 여인이 매달리며 이름을 물었으나 '홍'이란 성씨만 알려주고 떠났다. 귀국한 홍순언은 공금회원으로 투옥됐다.

10년 후 홍순언은 종계변무 임무를 띤 사절단과 함께 다시 북경을 방문했다. 선조는 떠나는 사절단에게 이번에도 바로 잡지 못하면 죽인다고 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반대했던 명나라 조정이었었는데 외무차관이 직접 영접을 나왔으며, 그의 부인은 큰절까지 올린 것이 아닌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홍순언은 옛날 통주의 주막집 일을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명나라 외무차관 석성(石童)의 부인이 된 것이다. 석성과 그의 부인은 조선에서 사신이 올 때마다 홍씨를 찾았다고 한다.

석성의 노력으로 200년 묵은 조선의 한이 두 달 만에 정정되었다. 돌아가는 흥에

게 압록강까지 나와서 보은(報恩)이라 수놓은 비단 100필을 선물로 주었다. 건넌 돈도 큰돈이었지만 보은도 지극했다. 조선은 경사였고, 선조는 감격했으며, 순언은 공신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극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다시 한번 주막집 임언이 외교관계로 발전하여 나라를 구한다. 전쟁 발발 보름 만에 의주로 피난 간 선조는 압록강 비바람 속에 명나라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명나라 조정이 파병 반대의 입장을 바꾼 것은 국방부장관으로 승진한 석성 때문이었다. 석성은 21만명의 보병을 파병하고 은화 900만냥을 지원함으로써 전쟁을 끝내게 된다. 7년 전쟁이 끝난 해에 홍순언은 죽고, 명나라는 쇠락의 길에 걷게 되는데 석성은 파병과 군비지원의 책임을 물어 투옥되고 옥사했다. 석성은 부인과 아들에게 조선으로 귀화하도록 유언을 남기고, 선조는 이들에게 정착하도록 해주 땅을 주어서 지금 해주 석씨의 시조가 되었다.

소설가 이병주는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다. 함께 임진왜란을 겪은 이순신은 햇빛에 바래고, 홍순언은 달빛에 물들었다. 오늘 트럼프의 약수는 어떻게 기록될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기 고

‘애꾸눈 광대 - 어머님 전상서’의 감동



이명자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지난 5월,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5·18 연극 '애꾸눈 광대-어머님 전상서'(이하 '애꾸눈 광대')를 5월 가족과 장애인체육 종사자들과 함께 관람했다.

'애꾸눈 광대'는 5·18 당시 겪은 자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5·18 부상자동지회 초대회장을 지냈고 이름 없는 시인과 코믹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상(본명 이지현)씨 이야기이다. 질박한 사투리로 짠하면서도 거시기한

사람. 그는 그해 5월에 한쪽 눈을 잃었으며 수십 차례의 연행과 강제납치, 두 번의 구속과 고문, 그리고 자살기도 끝에 살아남았다. 그의 가족사는 어떤가. 비극의 연속이었다. 남동생은 상무대로 연행당해 심한 고문을 받았다. 여동생은 사고로 잃었다. 어머니 부고 소식을 듣고도 달려가지 못한 사연은 기가 막힐 법하다. 공연 1시간을 앞둔 상황, 어머니 부고 소식을 받았지만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대에 올라야 했다.

연극보다 더 연극 같은 삶을 토대로 그는 2010년 5·18 30주년에 1인극 '애꾸눈 품바'를 시작했다. 그는 연극을 통해 개인의 아픔뿐 아니라 광주의 '한'이자 민족의 아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는 '애꾸눈 광대'를 통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 나라의 수많은 민절(극중 배우)이 가정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기를 염원했다. 그는 5월 공동체 정신과 잃어버린 '주

막바 공동체'를 복원, 민주주의를 찾자는 메시지를 희망의 몸짓으로 풀어냈다.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내려 했던 광주시민의 의지가 80년 5월의 희망을 불렀던 것처럼 말이다.

그는 이른바 '슬프나 겉로 슬프지 않게 승화시키는 공연'처럼 시대의 아픔을 노래와 춤에 가미하고 희석시켜 관객과 함께 공감하면서 80년 그날을 다시금 떠올리도록 하는 재미와 의미, 교훈, 감동의 그 자체를 선사했다.

연극은 일제 강점기와 6·25, 5·18을 겪은 어머니의 한 많은 인생사, 특히 5·18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유머와 춤과 노래로 비무렸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눈물과 슬픔으로 사신 어머니의 임종도, 빈소도 지키지 못한 채 공연을 해야만 했던 광대의 운명에 관객들은 함께 느끼고, 분노하고, 가슴앓이 하며 소꿸했다. 연극이 끝난 뒤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

했다. 과거 5·18 관련 부상자들과의 인연으로 장애를 가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직접 지켜봤던 만큼 더욱 그랬다.

연극은 5·18의 슬픔을 슬픔으로만 풀어놓지 않고 희망으로 승화시켜야 할 때라고 느껴며 다짐하는 계기도 됐다. '애꾸눈 광대'는 5·18 기념공연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 연극은 5월 황정과 촛불혁명을 일으킨 위대한 국민들께 드리는 가슴 아픈 시대극이자 휴먼드라마다.

이 때문에 세계 최장수 연극인 영국의 '쥘리'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광주를 대표하는 연극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애꾸눈 광대뿐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 광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극뿐만이 아닌 다양한 장르의 상설공연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시민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광주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었으면 한다.

社說

농민 울리는 가뭄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극심한 가뭄이 농민을 울리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6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한 데 이어 경기·충남·전남 지역에 가뭄이 발생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가뭄 피해가 심각한 무안군 삼향읍을 찾았다. 이 총리는 "지난 달까지 호남 지역은 가뭄 대책비를 지원받지 못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뭄 대책 예산도 거의 바닥난 상태"라면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추경에서 가뭄 대책비 등이 서둘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가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전남 4개 군의 가뭄 상습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영산강 4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 지원(광주일보 6월 9일자 5면)을 지적한 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한 것이다. 최근 6개월간 전국 강수량은 평년

(331mm)의 69% 수준으로 전남 무안과 신안 지역의 경우 가뭄 '심함' 단계로 분류됐다. 전남 지역의 현재 가뭄 피해 면적은 신안 2천240ha를 최고로, 무안 997ha 등 9개 시군 3천503ha에 이른다. 이 총리가 찾은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들녘은 더욱 피해가 심한 지역이다. 10개 간척농지 1492ha 가운데 30%가량(449ha)에서 아직까지 물이 없어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내기를 하지 못한 1043ha에서도 물 마름(135ha)과 시듦(175ha), 고사 피해(180ha)가 진행 중이다. 수확이나 파종 단계를 앞둔 발작물도 품질이나 수확량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가뭄에 대비해 관정 개발 등 그때그때 땀질식 처방이 아닌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이번 이 총리의 가뭄 현장 방문에 동행한 박준영 의원은 농·식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담수화 바지선 운영과 강물을 주변 저수지나 농지로 공급하는 농수로 고속도로 건설을 거론했다. 정부와 국회와 함께 고려해 볼 만한 제안이다.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 경쟁력 제고 기회로

정부가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국적으로 105개 시장으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9개 시장이 선정됐다. 글로벌 명품형·문화관광형·골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최대 3년 동안 6억 원~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만의 독특한 콘텐츠 개발과 특화상품 발굴, 홍보 마케팅 지원, 시장 상인 교육 등 소프트웨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호남을 대표하는 양동복개상가의 경우 3년간 25억 원을 지원해 전통시장의 글로벌로 육성할 계획이다. 디자인과 ICT융합사업 추진, 상품 발굴과 관광 정책 연계 등을 통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찾을 수 있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문화관광형시

장으로 선정된 말바우시장과 봉선시장은 장보기와 문화체험, 관광이 어우러진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장흥 도요시장을 비롯해 최근에는 1913송정역시장까지 관광객을 끌어모은 성공 사례도 많다. 하지만 이들 전통시장들은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상인과 자치단체 등 지원 주체 간 끊임없는 사후 관리가 있어 성공이 가능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몇 차례 있었지만 시장별 차별화 한계와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해 단발성 행사에 그친 사례가 많다. 이번에는 정책 연계를 통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찾을 수 있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문화관광형시

無等鼓

“큰 눈은 5~6치, 모양은 무조어(無祖魚)를 닮았다. 빛깔은 검고, 눈은 튀어나와 물에서 잘 헤엄치지 못한다. 즐겨 흠탕물 위에서 잘 뛰어들며 물을 스쳐 간다.”

순암 정약전은 '자산어보(鮫山魚譜) 대두어(大頭魚) 항목에서 한 물고기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바로 '장동어', 한자로는 '철목어(凸目魚)이다. 머리 위로 눈이 돌출되고, 흠탕물 위에서 잘 뛰노는 물고기. 어능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근대 수산학의 태두(泰斗)인 순천 출신 장문기(1898~1995) 박사는 '장동어'를 '장동어'

장동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망둑어와 어류는 말뚝망둥어, 풀망둥어, 쟁둥어 등 60여 종. 쟁둥어는 망둑어과의 한 종으로, 말뚝망둥어 등과 사촌 격이다. 쟁둥어라는 이름은 서남해안 지방에서 펴어 이름을 따고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겨울잠을 자는 습성에서 '잠둥어'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쟁둥어는 펴 밖에서 아가미 호흡과 피부 호흡을 하는 특이한 어종이다. 한 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연안 갯벌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환경오염 지표종이다. 또한 영양소가 풍부해 보양식 재료로

도 인기가 높다. 이때문에 어민들은 긴 낚싯대에 미끼 없는 바늘을 달아 펴 위를 훔는 '훔치기 낚시'로 경제성이 높은 쟁둥어를 잡는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쟁둥어 자원 조사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011년 인공 종자 생산에 성공한 이후 매년 수질관리를 차여로 키워 방류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수질관 30만립을 재탄해 9월께 차여로 방류할 계획이다. 건강한 갯벌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 증식은 물론 어민들의 소득 증대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간() 제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